

밀레, 'IFA 2009 최우수 부스' 선정...2년 연속

삼성, LG전자 등 국내 브랜드도 상위권 랭크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2009-10-08

독일 가전업체인 밀레가 지난달 4~9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09'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부스로 선정됐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브랜드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8일 독일 기업 컨설턴트 및 테스트 회사인 V3T(www.v3t.de)에 따르면 부스디자인, 고객 상담 수준, 대리점을 위한 공간 등 총 3개의 항목을 정해 참가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밀레는 합계 점수 64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지멘스, 3위는 소니가 차지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지난해 IFA 2008에서 6위를 차지했던 삼성이 2계단 상승한 4위, LG가 9계단 상승해 11위를 기록했다.

IFA 2009 에서 밀레 부스는 전체 생활가전전시공간 10% 규모인 3천㎡의 전시공간을 활용, 소비자 및 딜러를 위한 2개의 공간으로 꾸몄다.

특히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청소기, 에너지소비를 40% 이상 줄인 히트펌프 의류건조기와 에코 컨퍼트 세탁기, 8ℓ의 물로 14인분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 등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한 에코(ECO)라인 제품 등을 대거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한편, 밀레는 '평균 제품 수명 20년'이라는 탁월한 내구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가전제품의 벤츠나 BMW로 통한다. 지난 1899년 밀레와 진칸 두 사람이 공동 설립한 가전회사로, 창업 이래 110년 동안 밀레와 진칸 두 가문이 4대째 대를 이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05년 6월 한국지사인 밀레코리아가 설립됐다.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이비뉴스에 있으며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